

뉴욕 연회 주일 예배
연합감리교회
토마스 비컬튼 감독(Bishop Thomas Bickerton)
2020년 6월 14일

예배 순서

서곡: “이러한 때에 주님이 필요하네” 작곡: Ruth Caye Jones (1944)

이런 때에 주님이 필요하네
이런 때에 닳이 필요하네
확신하세 확신하세
그 반석 위에 네 닳을 내려라.

이 반석 예수 한 분일세.
이 반석 예수 오직 한 분.
확신하세 확신하세
그 반석 위에 네 닳을 내려라.

이런 때에 말씀이 필요하네
이런 때에 열심을 내어라
확신하세 확신하세
그 반석 위에 네 닳을 내려라.

이 반석 예수 한 분일세.
이 반석 예수 오직 한 분.
확신하세 확신하세
그 반석 위에 네 닳을 내려라.

이런 때에 주님이 계시네
이런 때에 내겐 닳이 있네
확신하네 확신하네
그 반석 위에 내 닳을 내렸네.

이 반석 예수 한 분일세.
이 반석 예수 오직 한 분.
확신하세 확신하세
그 반석 위에 네 닳을 내려라.

환영사: 토마스 J. 비컬튼 뉴욕연회 감독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예배는 3 주전--George Floyd 씨가 사망하기 불과 몇일 전에 촬영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기에, 지금은 여느 때보다 더, 우리 문화와 국가와 심지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체계화된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깊은 탄식을 내뿜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미있는 분노와 좌절을 표현했습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이 일이 그저 빨리 잠잠해지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사라져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체계화된 인종차별로부터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과 함께 서야하며, 늦었지만 “더 이상은 안돼!” 라는 말을 같이 외쳐야합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울려 퍼져 닿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재능과 능력을 억압해온 체계와 구조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은 화려하나 끝이 흐지부지한 용두사미식의 연구, 프로젝트, 서적 따위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됩니다. 문은 열려져 있었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지난주 타운홀 미팅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60 년대에 일어난 저항운동과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저항운동에는 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유색인종, 세대, 문화권으로부터 다양한 무리들이 모여, “이제는 더 이상은 안돼,” “변화가 필요해” 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지도자들에게 있어, 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접목시키는 일이 요청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붙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려주고 절망과 혼돈 속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현실에 적용할 때입니다. 성공회 워싱턴 교구의 Mariann Edgar Budde 감독님께서 이에 대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성경은 세상을 품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줍니다.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나가게 합시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Budde 감독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사회적 표현으로 정의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임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유색인종에 대한 범죄에 있어 경찰들이 아무런 처벌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을 고치는 일은 진작에 이뤄져야 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드러난 건강보험 체계 내의 심각한 불평등은 진작에 바로 잡아졌어야 했다,’ ‘백인만이 특권을 누리는 경제/교육체계를 이미 오래 전에 바꾸었어야 했다’ 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들을 성경 역시 맞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Budde 감독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분보다 더 잘 표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쪽 진영에 서서 입장을 취해야할 때입니다. 저에게 있어 지금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저는 평화로운 시위를 진행하며 의미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있습니다. 또 특별히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소망이 존재하는지 정의롭게 고심하는 젊은 미국인들과 함께 서있습니다. 도가니처럼 끓어오르는 순간입니다. 은혜와 용기를 갖고, 우리는 일어나 성취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따라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 아주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의 곁에서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대화, 설교, 실천을 앞장서서 지속해 나아갈 것이며 그것이 멈추지 않도록 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발맞춰 이끌며 나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한 명의 리더로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고, 경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랩가수이면서 사회활동가인 Killer Mike 씨가 했던 말이 최근에 아주 영향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Stephen Colbert 씨가 Mike 씨에게 백인 미국인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 대답으로 Mike 씨는 “ ‘지금 이 순간’ 이 ‘언제나’ 입을 깨달아라” 라는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실제로, George Floyd 의 사망사건에 대해 흑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저를 포함한 백인들에게는 ‘언제나’ 그러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흑인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매일 매일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 죄를 분명히 하고 용서와 화해를 모색하고, 인종차별로 발상했던 그 거대한 불균형을 종식시키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이 문제를 흐지부지하게 만드려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Budde 감독님의 말씀처럼 지속적인 변화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항상 얻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모든 방해들을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이며,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의 긴급한 시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켜 회복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대두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George Floyd 사망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 만난 결과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 이 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모든 흐름은 우리의 사명, 사역, 섬김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데믹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매일 성도들을 목양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보살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3개월간 목사님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스트레스를 더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닥칠 미래를 대비하는 점에 있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역자들의 안전과 안위를

감독하는 일에 책임이 있는 우리 리더들로서는 사역자의 자기 돌봄이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숙고의 대상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연회 모임이 예정되어 있던 이번 주말을 택해, 4일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진 날들을 위해 필요한 힘을 보충하고, 휴식, 기도, 독서를 하며, 예배와 설교준비의 아무런 압박감 없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이번 한주를 통해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사역팀이 여기 20 Soundview 에 모여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보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뉴욕연회에서 성도 개발 및 활성화 부서의 리더로 수고하시는 데이빗 길모어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데이빗 목사님의 섬김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데이빗 목사님은 미조리 주의 캔사스로 귀향해 허트랜드 지역의 감리사로 사역하실 예정입니다. 데이빗 목사님께서 뉴욕연회 임원단과 지역교회들, 그리고 새롭고 창의적인 사역이 시작된 다양한 지역에서 이례적인 비전과 리더쉽을 보여주셨기에, 뉴욕 연회로서는 손실이지만, 미조리주 연회에는 큰 수확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데이빗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과 주의 계획이 뉴욕 연회의 사역에 어떠한 길을 알려주시는지 듣기 위해, 이번 예배에서 마지막 설교를 부탁하였습니다. 데이빗 목사님은 7월 중순 경, 새로운 임무를 위해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카드와 편지를 포함한 감사의 글들을 데이빗 목사님께 잔뜩 보내어,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일들에 감사를 표합시다. 우리가 직접 만나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신실하고 열정적이며 깊은 헌신을 보여준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다함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뉴욕연회 임직원(캐비넷), 시편 84편 낭독

김성찬 감리사 (통아일랜드 서부 지역)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캐런 몽크 감리사 (캐스킬 허드슨 지역)

2.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팀 리스 감리사 (뉴욕 커네티컷 지역)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빌 쉘리어디 목사 (연합감리교 시티 소사이어티 전무이사/경영책임자)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드니스 스마트-시어스 감리사 (메트로폴리탄 지역)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알퍼 실베스터 감리사 (커네티컷 지역)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로버트 워커 목사 (감독 비서)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로스 E. 윌리엄스 (재무/행정 책임자)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임 줄리아 연희 감리사 (롱아일랜드 동부 지역)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다함께: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찬송: 시온으로 행진(연합감리교회 찬송가 733장) 작사:Isaac Watts(1707) /

작사(후렴):Robert Lowry(1867) / 작곡:Robert Lowry(1867). 연주:Raymond Trapp 음악총괄

1절 주 사랑하는 자 다와서,

우리의 기쁨을 널리 알리자

한 마음으로 노래하자

한 마음으로 노래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게 하자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게 하자

후렴:

우리는 시온으로 행진하네

아름답고 아름다운 시온

우리는 시온을 향해 오르며 행진하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시

2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
찬양하지 않을 지라도
하늘에 계신 왕의 자녀들,
하늘에 계신 왕의 자녀들은
그들의 기쁨을 만방에 전하네
그 기쁨을 만방에 전하네

(후렴)

3 절 시온의 언덕은
수천가지 신령하고 달콤한 열매를 내니
우리가 천국 들판에 닿기도 전에
우리가 천국 들판에 닿기도 전에
그 황금 길을 걸기도 전에
그 황금 길을 걸기도 전에

(후렴)

4절 우리의 노래 풍성하게 되어
모든 눈물을 마르게 하리라
우리는 임마누엘의 들판을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의 들판을 통해
높이 있는 평등한 세상을 향하여 행진하네
높이 있는 평등한 세상을 향하여 행진하네

(후렴)

성경봉독: 사도행전, 2장 37-42절, 봉독: 매트 커리 목사 (뉴욕연회 연대사역 담당)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 주의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찬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설교: “전진, 전진, 전진!” 데이빗 A. 길모어 목사 (뉴욕연회 성도 개발/활성화 담당)

사도행전 2장 37-42절

“전진, 전진, 전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초대해주신 토마스 비컬튼 감독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설교가 오늘 누군가의 영혼에 감동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잠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 먼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올려드리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에 저를 사용하시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신령한 것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우리는 날아가네
앞으로 선택할 여러 길에서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할 것이며, 달려가는 법을 배울 것이고
(그렇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지평선을 공유하고,
길을 따라 놓여진 표지판들을 주시하며,
우리 중 몇명은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매일 매일 함께 일하고,
다함께,
그리고 저녁이 오면,
앞에 놓여진 삶을 보며 미소 지으며,
우리가 성장해나갈 곳을 찾을 것이고,
(그렇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지평선을 공유하고,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에 유행한 그룹 “Carpenters” 의 히트곡의 2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기독교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찾아가는 사랑이다. 감사, 헌신, 증거, 섬김, 기념, 제자화의 삶을 함께 구현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정신과 사명을 구체적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 사역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통해 섬김의 사역으로 부름받았다...” (교리와 장정, ¶126, 2016) 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세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에 참여한다. 그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마음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곳, 즉 인간의 필요가 있는 어떤 곳이든 뻗어 나아간다. 그러한 사역의 확장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교리와 장정, ¶128, 2016)”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마지막 문구가 정말로 맞나요?

“전진, 전진, 전진!” 연합감리교회 장정이 “사역의 핵심” 과 “교회 공동체의 사역” 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는지 읽고 난 후, 저는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 말은 교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말처럼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음, 정말 그럴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수사적인 질문이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한 연구를 통해 신 혹은 종교로부터 돌아서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젊은 세대들이 그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자신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딱히 구체적인 신앙이 없다고 소개한 미국인의 비율이 16%에서 약 23%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전체 미국 인구의 약 78%에서 7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2017년 기준으로 ‘믿지도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번째 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 1:4)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곧 성령의 임재와 내재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의 결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잘 나와있습니다.

사도행전 첫번째 장을 읽어 보십시오.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그들에 대한 어떤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이 제대로 준비되고 권능을 받지 않으면, “그 일” 즉,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 지는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말하기 위한 준비는 아직 되어있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해야 할 예수님의 이야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직 그들의 것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전진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 묵상하던 중, “무릎반사” 실험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 무릎반사 실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것은 의사가 무릎뼈 바로 밑에 있는 무릎연골을 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무릎을 때리면 다리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게 되는데, 만약 그러한 반응이 없을 시에는 중추신경계 손상 혹은 갑상선 질환의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가 의학에 정통한 것이 아니기에, 저는 이 ‘무릎 반사’를 의사가 의도적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환자에서 나타나는 반응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레짐작할 수 있지만, "무릎 반사"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 무릎을 망치로 맞아보고 나야지만, 그 반응을 통해 자신들의 진짜 몸 상태가 어떤 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오순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것은 곧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에, 아직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사역을 감당하셨던 곳에서, 그가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해낼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에,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전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따듯해지고, 영혼을 감동시키며, 삶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힘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 받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어 그들 속에서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일반적으로 오순절 설교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성령강림사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곧 다가올 약속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거나, 완전히 탈바꿈하거나, 그들을 강하게 때릴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강하게 얻어 맞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권능으로 무장시켜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성령이 베드로를 강하게 때렸을

때에 비로소 그 이야기가 베드로의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것이 되었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는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과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까지 다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모습이 바뀐채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네,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동안 예수님을 저버렸으며, 나중에는 비어있는 무덤으로 요한과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네요. 정말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요 21:15-17) 교회인 베드로는 그 이야기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신선한 바람처럼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행” 한다는 더욱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베드로를 덮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 전해야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 강하게 얻어 맞았습니다.

베드로가 세번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세번이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을 필요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버렸지만,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무리에게서 달아나버렸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그 무리를 치는 양치기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침내 베드로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더 좋겠네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듣는 이의 심령을 쫓개고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존재로 변화하는 “믿는 자들” 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성령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능력에 즉각 반응하여, 다른 이들도 믿음 안에서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많은 이들이 세상을 회의주의, 비관주의, 타락이라는 틀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그들이 인류에 대한 수많은 폭력과 불의의 사건들을 목격해왔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Ahmaud Arbery(South Georgia에서 무장한 백인들의 총에 맞아 죽은 흑인 남성)의 이름을

말할 겁니다. 누군가는 Skhyllur Davis(최근 인종차별 범죄로 공격받은 11살 흑인 소녀: 역주)의 이름을 말하겠죠. 이 희생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많은 수의 무감각한 자들(numbed aints)에게는 그것이 교회 전체의 무기력함으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영광스럽다가 보단 피로 얼룩져버린 교회의 역사가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뼈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회는 어찌되었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세대도 아닌 세번의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켜온 우리의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너무나도 위선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위선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고 영향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한 가장 주된 원인인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증오의 수단으로 전략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을 외치면서도 저주의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회의 소외되고 외면당한 자들을 계속해서 내치는 망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교회의 ‘착한’ 사람들도 가장 작은 자들에게 짐승처럼 무자비 했고, 가장 뒤쳐진 자들에게는 너무 빠른 곳이었으며, 갈 곳을 잃은 자들에게 보스처럼 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 얻어 맞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aints)이 신자들(Saints)에 의해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aints)이 성도들(Saints)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aints)이 그 성도들(Saints)에게 깨지고 파괴되어 왔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성도들말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 모두, 많은 사람들, 공동체, 그리고 가족들을 이용해먹고 확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희망과 사랑이 썸 솟는 장소가 아닌 박물관 내지는 묘지로 전략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얻어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맞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가득한 성령의 부으심에 반응하게 될 때, 이전과는 다른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 베드로가 그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듣는 자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겨 무엇을 해야하는지 사도들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에 베드로가 답하길, “회개하여 세례와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일들에 반응하여 참여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선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로 가득한 공간과 자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을 한 것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신령한 인도를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의문이었죠.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자극 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해낼 수도, 느끼지도, 도달할 수도 없는 단계로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를 통해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성령의 임재에 반응하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있는 “(성령에) 얻어 맞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만...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날, 그 장소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움직임이 있었음이 틀림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본문은 성령의 넘치는 부으심이 3000명에게 임했을 때, 그 결과로 (3하고도 0을 세 개 더 붙인 3000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이야 (성령에게) 얻어 맞았습니다! 그날, 3000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으며, 그날 감동이 되어 그 이야기와 앞으로 함께 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얻어 맞았습니다! 아직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한, 우리도 일합니다! 성령님이 변화시키시는 한, 우리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한, 우리도 전진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안에 진정한 힘이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안에 힘, 진정한 힘이 있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게 준비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는 신자들(Saints)과 비신자들(aints)에게 우리들의 이야기(복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실 때, 거룩한 담대함이 우리를 채워, 교회와 세상에 있는 힘을 쥐어준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외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에게 맞고 나서 앞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믿는 자들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변화된 대리인들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두려움과 부끄러움없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시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며, 교회에 가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시면, 교회라는 선교적 전초기지를 통해,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 안아주기 어려운 사람들을 안을 것이며,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치시며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브루클린과 하트포드에서도, 플리젠트빌, 사우스잉튼, 할렘, 웨스트포트, 스테이트 아일랜드, 롱아일랜드, 그린위치, 보울링 그린, 오렌지, 화이트 플레인스까지- 이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커네티컷 주, 뉴욕 주, 미국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치심” 과 함께 변화는 찾아옵니다. 어머니들,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에 치일 때 아이들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아버님들,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를 치실 때, 그들은 여러분을 인생의 선배로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성령에게 치일 때, 그들은 멋진 영웅이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라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전진하여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부르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당신의 것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온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까지 물리쳐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와 지금 바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러하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을 우울함, 공허함, 절망에서 불러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십시오!

아멘, 샬롬.

성가대 특별찬양: *Credo*, 버츄얼 콰이어 프로젝트, 지휘: 신디아 A. 윌슨 목사
(연합감리교회 종합부, 예배자원부 디렉터)

목회 기도: 도리스 K. 달튼 목사, 리더쉽 개발 및 다문화 역량 개발부, 뉴욕연회

저와 함께 잠시 Ahmaud Arbery, Breonna Taylor, George Floyd,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불의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모든 이들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위대한 의사이며, 우리 마음의 치유자시며, 우리 영혼의 위안되시는 하나님.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생명이라는 당신의 선물로 호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강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자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질병에 감염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 그들의 몸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주님, 노인들과 약해진 면역체계를 가진 자들, 바이러스 특별히 취약한 자들을 보호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젊고 힘이 있는 자들을 위해: 주님, 이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돕는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소서.

실직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 교회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원을 활용해 저들을 돕게 하소서. 이 불확실하고 어떤 미래가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에 있는 이 시간,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소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불안함과 소외감, 무기력함에 빠진 자들을 위해: 주님,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공급해주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 주님,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쉼터와 안위를 주소서.

배고프고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주님, 이들을 무료급식소, 음식 나눔 창고로 인도하소서.

자녀들과 함께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주님, 부모, 조부모, 어린 자녀들의 보호자들이 아이들 양육과 돌봄에 창의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외부로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양육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손길과 프로그램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위로와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의 목사님들과 리더들을 위해: 주님, 그들에 적절한 휴식을 주소서. 그들이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도록 준비되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사오니,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의 리더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관대함을 갖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모든 노력에 힘을 보태어 불확실함과 두려움의 시간을 뚫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그리고 영원한 희망이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다시 한번 기회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증인들과, 격려자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붙들고, 덮으며, 새롭게 하며, 힘을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그 사랑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피난처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마음의 기도와 영혼의 깊은 한숨까지 헤아리시고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우리는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네 (UMH #525) 작곡/작사: Charles Albert Tindley (1906). 편곡: F. A. Clark / 인도: Mr. Raymond Trapp, 음악 총괄

1. 우리는 씩씩한 시간의 바다 위로 이끌려 왔네
흐린 하늘과 거친 폭풍
이따금씩 비치는 밝은 햇살
완벽한 날의 저 땅에서

안개가 걷혀질 때
우리는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네

(후렴) 곧 아침이 오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에 모여,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야기를 나눌 것이네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2. 우리는 종종 삶이 요구하는 것이 부족하여 궁핍하며,
음식과 보금자리를 필요로 하지만,
메마른 언덕과 황량한 대지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따라 나아가네.
우리는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네

(후렴) 곧 아침이 오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에 모여,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야기를 나눌 것이네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3. 도처의 널린 어두운 심판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네
주가 눈동자처럼 우리를 안내하시니,
우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따라 가려네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후렴) 곧 아침이 오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에 모여,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야기를 나눌 것이네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4. 곳곳에 도사리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생각없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입으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도 왜 시련이 닥치는지 의아해하지만,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이라네.

(후렴) 곧 아침이 오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에 모여,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야기를 나눌 것이네

우리는 곧 깨닫게 것이기 때문에

축도: Bickerton Thomas J. Bickerton 감독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Ruth Duck 목사님의 말씀에서 인용한 축도를 들려드립니다.

두 팔을 넓게 벌리고 머리를 높게 들며 마음 속에 사랑을 심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 아름다우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으십시오. 미래를 움켜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던,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 속에 거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건강하며, 복을 누리고,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후주: “살아계신 주 성령” (UMH #393) 작사/작곡: Daniel Iverson (1926),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빛으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